

대한민국 제 21 대 대통령 취임사 전문

대한민국 제 21 대 대통령 이재명

2025 년 6 월 4 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 21 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 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 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 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그리고,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 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 위 경제력에 세계 5 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 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의 혁명, K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 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 를 곧 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 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 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 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튼튼하게 뒷 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고,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만든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게 할 순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게 할 것 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투자 할 것 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 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해 가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서,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 위기 지방을 다시 살려 갈 것입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 성장 전략으로 세계 10 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대. 중. 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 사회로 전환해 갈 것 입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바로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던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일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 팝부터 K 드라마, K 무비, K 뷰티에 K 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이제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 대 강국으로 도약 할 것 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등 이 우리의 민 낯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 의 2 배에 달하는 국방비, 세계 5 위 군사력,

여기에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격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숭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우리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 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 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 받은 대리인으로서

제 21 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